

식별되는 자: 위치기반기술, 원격성과 감시의 문제, 그리고 비-장소(non-place)†

이두갑*

이 글의 목적은 사회과학에서의 “공간적 전환”(spatial turn)이라는 새로운 흐름에 기반하여 근대사회에서의 공간적 배치와 감시에 관한 논의의 일환으로 21세기 위치기반서비스(Location-Based Service, LBS) 기술을 분석하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우선 위치기반기술을 원거리 식별, 추적, 감시를 통해 시-공간에 대한 관리와 제어를 가능하게 해주는 원격성 기술의 발전이라는 맥락에 위치시켰다. 조정과 감시의 기술로서 LBS를 분석하기 위해 본 논문은 이 기술의 구조를 LBS 시스템의 사용자와 위치정보 서비스, 그리고 시스템 내에서의 정보의 흐름에 따라 규명했다. 이어 LBS 기술의 법적, 사회적 영향, 특히 LBS 기술에 의해 ‘식별되는 자’의 법적 지위와 감시의 문제를 분석했으며, 특히 미국과 한국의 주요 LBS 사례를 중심으로 프라이버시(privacy)를 둘러싼 이론적이고 공공정책적인 이슈들에 대해 논의했다. 이를 통해 개인의 실제, 오프라인 삶의 광범위한 영역들이 컴퓨터 매개를 통해 일어나는 이 시대에 LBS가 어떻게 ‘식별되는 자’의 위치정보를 매개로 “생활의 모든 순간”에 대한 추적과 감시를 수행하며 감시 자본주의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결론으로 본 논문은 LBS를 통해 식별, 감시, 제어되는 개인 주체와 이들이 위치해 있는 공간의 특징을 분석하여, LBS가 비-장소라는 새로운 공간을 생산하며 유사한 정체성을 지닌 ‘식별되는 자’를 생산하고 있는지를 비판적으로 고찰했다.

【주제어】 위치기반서비스, 원격성, 감시 자본주의, 비-장소

† 이 논문은 2014년도 SNU Brain Fusion Program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원격성 프로젝트의 공동연구원 전치형, 최형섭 교수와 연구조원 유상운, 박진영, 그리고 김기홍 편집인에게 감사드립니다.

* 서울대학교 서양사학과 & 과학사 및 과학철학 협동과정
전자메일: doogab@snu.ac.kr

1. 서론

원격성(remoteness) 문제란 무엇인가? 사회학자 앤토니 기든스(Anthony Giddens)는 근대사회가 경제와 정치, 문화 활동의 전지구적 확대 과정에서 물리적, 문화적 원거리로 인해 나타나는 여러 분리와 고립, 오해와 혼란을 극복하고자 다양한 기술적, 사회적 제도들을 발전시켜 왔음을 지적했다(Giddens, 1990). 그는 특히 근대사회가 상품과 노동, 자본의 전세계적 순환을 촉진할 수 있도록 지리적 거리를 극복하고, 시간의 표준화를 통해 분리된 장소들 사이의 동시성(synchronicity)을 확보해주어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비대면적 상호작용이 증대했음에 주목했다. 무엇보다 20세기 이후 철도와 전신, 비행기와 인터넷과 같은 전 지구적 교통과 통신, 정보 수단의 발전과 더불어 시공간의 표준화, 원거리 거래와 활동에서의 신뢰 구축을 가능하게 해 주었던 화폐와 전문가 지식의 확대 등은 기존에 존재했던 공간과 시간의 제약을 넘어 정보와 사물의 빠른 이동과 순환을 가능하게 해 주었다. 그는 근대사회가 이렇듯 원격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통, 통신, 정보, 제어의 측면에서의 기술적 발전과 표준화를 추동해왔을 뿐만 아니라, 법적 계약(contract)과 신용(credit)에 기반한 경제와 사회의 조정 과정을 발전시켜 왔음에 주목했다.

근대 사회를 공간과 시간의 차원에서 나타나는 원격성 문제에 대한 대응 과정으로 파악한 기든스의 논의는 20세기 이후 교통과 통신, 정보와 제어 분야의 과학기술상의 발전과 사회적 제도, 법의 변화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 줄 수 있다. 기든스는 무엇보다 지역적 맥락에 국한되어 있었던 다양한 경제적, 사회적 활동들이 국지적인 맥락을 초월해서 전지구적으로 확장된 시간-공간 하에 통합될 수 있도록 시간과 공간의 분리(time-space disembedding)와 재조합, 그리고 확장이 나타났다고 분석한다. 그리고 이러한 확장을 위해 다양한 교통과 정보, 제어 기술 시스템의 발전과 관련 법, 제도의 혁신이 나타났다고 지적한다. 이 과정에서 특정한 장소에 국한되어 정의되었던 시간과 삶의 리듬들이 표준화되고

탈 맥락화되면서 전 지구적 사회, 경제 체제의 통합이 시작되었다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21세기 들어 정보통신기술 네트워크의 발전을 통해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요소들이 유례없는 정도로 결합하는 ‘초연결사회’(hyperconnectivity society)가 도래하리라는 2012년 다보스포럼의 전망도 원격사회의 등장과 확장이 라는 큰 역사적 흐름의 일부로 파악할 수 있다.

본 논문은 원거리에 있는, 서로 다른 사회적, 문화적 거리가 있는 집단과 장소, 그리고 서로 다른 시간대에 존재하고 있는 사람들과의 연결과 조정을 가능하게 해주는 원거리 기술(at-a-distance technologies)의 발달이라는 측면에서 21세기 위치기반서비스(Location-Based Service, LBS)를 위치시킬 것이다. 우선 LBS란 전 지구적 차원에서 위치를 파악하는 GPS(Global Positioning System, GPS) 시스템과 무선통신망 등을 통해 식별되는 자의 위치를 파악하고, 이러한 위치정보를 바탕으로 인터넷을 비롯한 여러 정보서비스 사용자에게 변경되는 위치에 따른 특정 정보를 제공하는 무선 콘텐츠 서비스이라 정의된다(FCC, 2012). 본 논문은 특히 개별 LBS의 구체적 사례를 분석하기 보다는, LBS 기술이 하나의 원격성 기술로서 지니고 있는 구조(architecture)에 초점을 두고 분석을 행할 것이다. 한 기술의 구조는 그 기술을 사용하는 방식과 그 사용자들의 경험을 형성하는 물리적이고 기술적인 가능성들의 한계를 규정하는 것으로, 법학자인 로렌스 레식(Lawrence Lessig)은 인터넷의 구조에 대한 분석을 통해 그 기술의 사회적 영향과 법적 상호작용을 연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Lessig, 1999).

원격성 기술의 일부로서 LBS를 파악했을 때, LBS의 기술적 구조는 그 시스템과 사용자가 관계를 맺는 방식, 그리고 이 시스템 내에서의 정보의 흐름을 통해 분석될 수 있다. 특히 원거리 감시와 추적(remote tracking)의 발달이라는 맥락에서 주목하여 본다면, LBS가 어떻게 보다 광범위한 수준에서 위치기반 기술 하에서 ‘식별되는 자’에 대한 공간과 시간을 특정한 생산 및 교환 시스템의 목적에 맞게 조정하고 관리하고 제어할 수 있게 해 주었는지를 분석해 볼 수 있을 것이다(Lyon, Marmura, & Perpoff, 2005). 즉, LBS는 위치식별 시스템과 위치정보를 활용한

서비스, 그리고 서비스 사용자 간의 정보의 흐름과 처리에 따라 원거리 위치와 행위의 식별(identification), 감시(surveillance), 제어(control)를 가능하게 해 주는 방식으로 그 기술적 구조가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본 논문은 LBS의 기술적 구조와 이를 사용하는 ‘식별되는 자’의 관점에서 LBS 기술이 어떻게 공간에 대한 감시와 시-공간의 탈맥락화를 가져오는지를 분석할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GPS 시스템이나 무선통신망을 이용해 시간과 공간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활용하는 LBS 시스템을 통해 나타나는 원거리 감시의 특징을 고찰해 볼 것이다. 이러한 분석에 기반해 다음으로 미국과 한국의 주요 LBS 사례를 중심으로 식별되는 자의 법적 지위와 감시의 문제를 분석, 인터넷 시대의 프라이버시(privacy)와 감시를 둘러싼 이론적이고 공공정책적인 논의들을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보다 중요하게, LBS가 어떻게 위치정보 서비스가 식별된 자에 대한 감시와 추적을 통해 시공간 조정의 변화와 행동 패턴을 범주화하고 이를 예측, 관리, 제어하며 감시 자본주의(surveillance capitalism)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는지 논의할 것이다(Zuboff, 2015). 마지막으로 LBS를 통해 식별, 감시, 제어되는 개인 주체와 이들이 위치해 있는 공간의 특징을 인류학자 마크 오제(Marc Augé)의 비-장소(non-place) 논의를 통해 고찰해 볼 것이다. 이를 통해 LBS가 어떻게 위치정보의 식별과 이에 바탕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식별된 공간을 비-장소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공간을 생성하고 있으며, 이러한 공간적 재배치를 통해 사용자들을 예측, 제어하며 유사한 정체성을 지닌 식별되는 자를 생산하고 있음을 비판적으로 살펴볼 것이다(Augé, 1995).

2. 원격성 기술과 공간적 배치, 그리고 감시

흔히 시공간 정복의 시기라 일컫는 20세기에 진행된 놀라운 기술발전 중 하나는 원거리 행위와 제어를 가능하게 해주는 다양한 기술들, 즉 원거리 기술들의 등장과 발전이라 할 수 있다. 각종 제어기기를 통해 생산에 관련된 기계뿐만 아니라

기차나 비행기와 같은 운송기계, 그리고 전신과 무선과 같은 통신 수단이 발전하게 되면서 인간이 원거리에서 제어할 수 있는 활동의 종류를 광범위하게 확대해주었다. 교통과 운송수단의 발달 때문에 거리는 더욱더 가깝게 느껴졌으며, 공간은 더욱더 압축되었으며, 시간은 표준화 되었다. 이와 더불어 급격히 발달하던 유럽의 산업자본주의 하에서, 원거리 활동에서의 신뢰를 구축하고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금융, 보험 계약들과 법적 제도들이 등장하며 자본과 정보, 그리고 상품의 순환이 가속화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러한 원거리 기술들과 제도들을 통해 더욱 먼 거리에서 경제적, 금융적 이득을 취할 수 있게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경제적, 사회적 네트워크로 연결하며 전세계적인 경제체계가 확립되었다(Giddens, 1990).

위치기반 기술은 20세기 중반, 특히 2차 대전 중 레이더 기술의 개발과 함께, 비행 기술의 발달로 사물이나 사람의 움직임을 시시각각 추적하고 그 움직임을 균질화된 시-공간 하의 좌표로 나타낼 수 있는 GPS 시스템이나 무선통신망이 전 지구적으로 설치되며 확장된 기술적 인프라에 기반하고 있다(Rip & Hasik, 2002; Denny, 2012). 이 과정에서 처음 원거리 교통과 통신을 가능하게 하는 정보통신과 제어 기술로 개발되었던 GPS와 같은 기술들은 20세기 후반 반도체 혁명을 겪으면서 점차 정교해지고, 소형화되고, 보편화 되었다. 이제 자동차와 같은 교통수단, 그리고 휴대전화와 같은 통신 수단 모두에 보편적으로 이러한 위치 측정 가능한 무선통신 기계들이 설치되면서, 전 지구적 차원에서의 원거리에 있는 사물과 사람에 대한 실시간 식별과 추적, 그리고 관리가 가능하게 되었다. 각국의 정부들과 군부(military), 그리고 다국적 기업들은 전 지구적으로 구축된 GPS와 같은 위치정보 시스템과 인터넷과 같은 정보통신 인프라를 통해서 사람과 사물, 적군, 그리고 상품들의 위치 정보 시스템을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Pickles, 1995).

20세기를 지나며 전 지구적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하에 나타난 이러한 변화들이 사람과 사물이 단지 시-공간의 측면에서 효율적으로 이동되고 관리되는 것을 넘어, 이들에 대한 식별과 추적을 수반하며 감시와 통제가 가능해졌다는 우려

또한 등장했다. 물론 근대 사회 감시 기술 시스템의 도래의 기저에 기술적 발전 이외에 여러 사회적, 정치적 요인이 영향을 미쳤다. 우선 감시 기술의 발달이 19세기 이후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정치, 경제 영역의 공개성과 투명성에 대한 요구로서 등장했다는 논의가 있다(Dandeker, 1990). 이와는 다소 대비되는 측면에서 막스 베버(Max Weber)는 근대 관료제의 발달 하에서 사람들에 대한 관리의 한 방식으로서 감시가 확장되어 왔음을 주장했다(Beetham, 1985).

감시와 공간적 배치에 대한 논의를 발전시킨 미셸 푸코(Michel Foucault)는 근대적 감시 기술들이 어떻게 감시하는 자와 감시되는 자가 공간적으로 배치되는지를 조절함에 따라, 즉 판옵티콘(panopticon)과 같이 원거리 상에서, 그리고 시각적으로 열린 공간 하에서 이루어지는 관찰이 단순히 감시를 넘어 더 지속적이고 은밀하게 개인을 제어하고 훈육하는 효과를 가져온다고 주장했다(Foucault, 1975). 그의 논의는 지리학과 역사학 분야에서의 “공간적 전환”(spatial turn)이라는 흐름과 함께, 자본주의적 공간의 재편에 대한 연구에 영향을 미쳤다(Withers, 2009). 이러한 맥락에서 기든스는 자본주의 하에서 점차 지리적으로 확장되어 가는 경제, 사회 활동을 동기화하고 조절하려는 측면에서, 시-공간이 분리되고, 탈맥락되고, 표준화되었음을 지적했고 볼 수 있다(Giddens, 1990).

푸코와 기든스의 공간적 배치와 근대적 감시에 대한 논의는 원격성 기술의 관점에서 최근 LBS 기술의 발전과 감시에 대한 분석에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 준다. 즉, 원거리 식별과 추적, 감시를 통한 공간의 재배치라는 맥락에서 LBS 기술을 본다면, 이 기술은 단순히 사람과 사물의 이동과 순환 과정에서 넓은 공간과 분절된 시간을 제어하고 통제할 수 있게 해 주었던 것은 아니었다. 보다 중요하게 LBS가 위치정보 시스템을 통해 공간적 배치 하의 이동과 순환, 활동의 패턴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추적, 감시하는 기술로서 발전해왔다는 시각에서 이를 접근해 볼 수 있다. 이에 다음 절에서는 LBS 기술의 구조에 대한 분석에 기반해, LBS가 어떻게 새로운 차원에서 식별되는 자에 대한 공간과 시간적 감시를 수행하고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

3. 위치기반서비스(LBS)의 기술 구조: 정보주체와 기술시스템

LBS는 우선 미국의 GPS, 러시아의 글로나스(Glonass) 등의 위성 시스템, 이동무선통신 기지국, 그리고 인터넷 Wi-Fi 인프라와 같이 전지구적이고 어디에나 존재하고 있는 통신시스템을 통해 사람과 사물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식별하고, 이의 공간적 이동을 지속적으로 추적할 수 있는 시-공간 기술들을 그 기반으로 한다. 위치정보제공 서비스자는 이러한 기술들을 사용해 위치 정보를 얻는 사업자를 지칭하는데, 한국의 위치정보법에 따르면 위치정보는 “이동성이 있는 물건 또는 개인이 특정한 시간에 존재하거나 존재하였던 장소에 관한 정보”라 정의된다.¹⁾ 그리고 위치정보 활용서비스 제공자는 이러한 위치정보를 사용, 처리하여 빅데이터 분석, 지도 및 주변 정보 서비스, 광고마케팅, 위치기반 게임, 차량과 물류의 관제 서비스 및 안전 및 환경 모니터링, 위치기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등 다양한 LBS를 제공해주는 역할을 수행한다(한국인터넷진흥원, 2013).

국내에서 LBS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위치정보사업자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2000년대 초·중반 네이버와 다음, 구글(Google) 등 인터넷 사업자와 삼성전자, 서울시 등을 시작으로 2015년 현재 800여개의 개의 사업체들이 허가를 받아 LBS 사업 등록을 한 상태이다(한국인터넷진흥원, 2016). 이들이 수집할 수 있는 개인위치정보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정의, 규제되는데, 이는 “특정 개인의 위치정보(위치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의 위치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의 위치를 알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하는 것이다.²⁾ 이때 개인위치정보에 의해 “식별되는 자”는 “개인위치정보주체”로 정의되며, 위치정보법은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2005년 첫 제정되었다. 위치정보법의 상위법인 개인정보보호법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으로 “정보주체”를

1)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15조.

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시행 2014. 11. 19.

정의하는데, “개인위치정보주체”는 이러한 “정보주체”의 하위 개념이다. 위치정보 사업자는 이렇게 LBS 시스템 하에서 식별되는 자의 위치정보를 “처리”하여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³⁾ 이때 “처리”란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지칭한다.⁴⁾

현재 LBS는 위치정보에 기반해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활용되고 있다. 하나는 새로운 정보를 검색하거나 얻기 위해 관련된 응용으로서, 사용자가 식별된 자신의 위치를 사용해 LBS 서비스 제공자가 그/그녀가 요청하는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이다. 일례로 특정 지역의 지도 서비스처럼 사용자가 자신 주위의 특정 음식을 판매하는 식당을 찾는다거나, 주변의 교통정보를 요구하는 경우가 정보 활용에 대한 것들이다. 두 번째는 추적 응용으로서, 개인의 안전을 위한 사용이나 보안, 사업상의 이유로 특정 개인의 움직임을 지속적으로 기록하는 방식으로, 특히 기업 사용자들에게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세 번째는 사용자의 위치정보를 응용, 이를 다른 활동과 연계시켜주는 광고와 프로모션에의 응용이다. 일례로 사용자의 위치를 활용해, 적절한 시간에 그 지역의 상점이나 식당 등에 관한 광고를 모바일 장치로 보내는 것, 이를 이용하여 게임을 즐기는 것, 그리고 이에 바탕해 동일한 지역의 사람들 간의 사회적 관계를 맺게 해주는 위치기반 소셜 네트워크(social network) 서비스 등이 이러한 경우에 해당한다(Lyon, Marmura, & Perpoff, 2005).

최근 LBS 시스템은 위치정보의 활용에 있어 보다 적극적인 형태로 개인의 다양한 경제, 사회, 문화적 활동과 결합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으며, 이를 통해 원거리 추적과 감시가 더 폭넓은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전에는 LBS가 전자태그(RFID) 혹은 차량내비게이터 등 특정 사물이나 사람에 장착된 단순한 위치정보장치의 도입에 기반해 이들의 위치와 이동 양태를 파악하고, 이를 통해 교통과 물류의

3) 개인정보보호법, 2011. 3. 29 제정, 2014. 11. 19 시행, 제2조(정의) <개정 2014. 3. 24>.

4) 개인정보보호법, 2011. 3. 29 제정, 2014. 11. 19 시행, 제2조(정의) <개정 2014. 3. 24>.

이동을 효율화하는 차원에서 다소 소극적으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2000년대 이후 개인들이 정보통신기기와 컴퓨터가 결합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스마트폰과 같은 기기들을 광범위하게 사용되면서 LBS는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하고 있다. 무엇보다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개인의 스마트폰은 단지 통신기기로서의 역할을 넘어, 컴퓨터와 같은 정보처리기술으로서 워드프로세서, 가상지도, 미디어 플랫폼, 게임, 소셜 네트워크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통신과 정보처리 기술의 결합을 통해 발전한 소위 스마트기기의 등장으로 인해 이미 LBS는 다양한 종류의 위치정보를 활용하여 지도와 광고, 게임과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렇듯 우리 주변의 LBS는 단지 공간상의 이동을 효율화하기 위한 기능을 넘어, 개인의 위치를 식별하고, 이를 식별된 자의 다양한 경제, 사회, 문화적 활동과 연계시키며 시-공간 상에서 개인의 활동에 대한 정보를 폭넓게 수집, 관리하고 있다(FCC, 2012).

보다 중요하게 LBS는 위치 정보와 개인의 다양한 활동에 대한 정보의 결합을 가능하게 해 주면서, 이러한 정보의 수집과 추적, 감시를 통해 특정 서비스를 통해 식별된 자의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다. 일례로 LBS는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개인의 위치를 식별해주고, 기존에 수집된 사용자의 선호와 행동패턴 등을 결합해서 사용자에게 주변의 식당을 알려주는 추천 서비스나 그 위치의 상점들을 알려주는 광고 서비스, 혹은 그 주변에 있는 지인들이나 특정 그룹들의 사람들을 표시해주는 사회적 네트워킹 서비스 등을 제공해줄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위치기반 서비스 제공자는 사용자의 원거리에 있는 사람과 사물의 위치를 식별하고, 그들의 움직임과 그 공간에 대한 정보를 수집, 추적하고, 이를 다양한 방식으로 분석, 광고와 추천과 같은 서비스를 통해 이 사용자들을 조절하고 제어할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LBS 시스템과 사용자가 관계를 맺는 방식, 그리고 이 시스템 내에서의 정보의 흐름을 통해 이 기술을 분석해 보았을 때, LBS는 식별되는 자의 위치정보, 이를 활용한 서비스, 그리고 서비스 사용자 간의 정보의 흐름과 처리에 따라

원거리 위치와 행위의 식별, 감시, 제어를 위한 기술적 구조를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렇듯 개인의 위치를 식별하고 그의 움직임을 추적, 감시하여 식별된 자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줄 기술적 가능성의 등장은 근대 자본주의 하에서의 감시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 주고 있다(House Commission, 2010). 나아가 20세기 후반 LBS는 어디에서나 존재하는 전 지구적 정보통신 인프라의 구축 하에, 시-공간의 분리를 통해 동기화된 공간 내에서 사용자들의 활동을 수집, 추적, 감시할 수 있는 기술 시스템으로 발전하였다. 이런 의미에서 LBS는 원거리 기술을 사용한 균질화된 시-공간 하에서의 감시 기술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어디에서나 존재하는 하에 감시 하에 사용자들의 위치를 수집하고, 이들의 움직임을 추적하면서 활용하는 LBS 시스템을 통해 나타나는 감시의 특징은 무엇인가? 그리고 LBS로 식별되는 개인 주체와 이들이 위치해 있는 공간의 특징은 무엇인가? 다음 절에서는 LBS 시스템의 구조 하에서 “식별되는 자”가 어떻게 정보주체로서 정의되는지, 그리고 이의 위치정보가 다른 서비스와 연관되면서 새로운 방식으로 재편된 시-공간 하에 존재하게 되는지를 논의해 보겠다.

4. 식별되는 자

GPS와 같은 시공간 추적 서비스가 발달하면서 공간과 이동에 대한 감시의 정확성과 규모가 커지자 미국지리학회(American Geographical Society)의 회장을 역임했던 제롬 돕슨(Jerome Dobson)은 광범위한 위치정보기술이 식별되는 자의 시간과 장소, 이들의 이동과 그 속도를 제어할 수 있는 “지리노예”(geoslavery)를 낳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Dobson & Fisher, 2003). 이에 여러 나라들은 개인의 위치와 이동에 관한 식별과 추적, 저장에 개인의 정보와 프라이버시의 침해를 가져올 것이라 우려하며 여러 법적 제도들을 마련했다(Bennett & Crowe, 2005; Lyon, Marmura, & Perpoff, 2005; FCC, 2012). 특이한 점은 대한민국은 세계 최초로 GPS 시스템이나 무선통신망을 이용해 시간과 공간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활용하는 서비스에 관한 법을 제정하여, 원거리 식별, 추적, 감시가 가능한 정보통신 인프라 하에 식별되는 개인이 지나는 여러 권리들을 정의하고 있다. 2005년 1월에 제정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그것이다. 이 법에 의하면 위치정보란 “전기통신설비 및 전기통신회신설비”를 이용해 수집된 “이동성이 있는 물건 또는 개인이 특정한 시간에 존재하거나 존재하였던 장소에 관한 정보”이며, 이렇게 개인위치정보에 의해 “식별되는 자”는 정보주체로서의 자신의 개인위치정보를 보호받을 권리를 가지게 된다.⁵⁾ 위치정보서비스는 이렇게 “식별되는 자”의 위치정보를 다른 정보와 유용하게 결합하여 여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위치정보의 사용에 관해서는 바로 위 법의 규제를 받게 된다.

LBS 시스템에 대한 법적 접근에 있어 국내법은 특정한 시간에 특정한 장소라는 두 변수로 개인을 식별하고, 이들의 이동을 추적하고 감시하면서 사람들의 행동과 취향 등에 대한 다른 차원의 정보들을 새롭게 수집하고 관리할 수 있게 한다는 측면에 초점을 두고 있다. 국내의 위치정보법에 의하면 “위치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의 위치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의 위치를 알 수 있는 것”을 개인위치정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LBS에 의해 “식별되는 자”의 개인정보를 추후 다시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상태로, 즉 익명화(anonymisation) 등을 통해 비식별화하여 그 위치정보만 수집했을 경우에도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박정훈, 2011; 박정신, 2012) 그렇지만 국내에서 애플(Apple)사의 아이폰 사용자가 애플이 휴대폰 단말기의 위치정보를 사용자 동의 없이 수집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재판에서 창원지방법원은 애플이 추적한 개인의 정보를 식별하지 않은 상태로 수집했기 때문에 “위자료를 배상받아야 할 정도의 정신적 손해는 없었다”고 판결한 사례 또한 존재하고 있어 법과 판결이 불일치되고 있는 모순된 상황이다(정상조, 2015).⁶⁾

5)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2005년 1월 27일 제정.

6) 창원지방법원, 2014. 6. 26. 선고 2011가합7291 판결.

국내 LBS에 대한 여러 연구들은 위치정보에 대한 법적 규제가 별도로 제정되지 않은 해외의 경우와는 다르게, 국내 관련 법규가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그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개인정보라고 광범위하게 정의하고 있음을 지적한다(박경신, 2012; 정상조, 2015). 일례로 미국의 경우 2012년 의회에서 위치정보보호법(Geolocation Privacy Legislation)이 발의되기는 했지만, 2016년 현재 연방정부 차원에서 법안이 제정되고 있지 않은 상태이다. 이에 국내의 경우, 익명화된 위치정보의 경우에도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동일하게 규제하고 있어, LBS를 사용한 위치정보 관련 기술 혁신을 막고, 기술의 사용 비용만을 증대시켜 이 기술의 이득을 사회가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존재해왔다(정상조, 2015). 이에 2016년 1월 방송통신위원회는 허가제로 운영되고 있는 LBS 사업인가 기간을 줄이고, 위치기반정보를 기반으로 한 여러 서비스의 발전을 위해 비식별화된 위치정보 이용에 대한 동의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위치정보 이용 활성화 계획”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세계 최고의 위치정보 이용 환경 조성”이라는 비전 아래, ① LBS 산업 육성, ② 사회안전망 고도화, ③ 프라이버시 보호를 추진목표로 하는 「위치정보 이용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이 계획은 “위치정보 보호와 산업 활성화간 균형을 달성하고, 위치정보 관련 규범의 국제적 정합성을 보다 높이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이라 강조했다(방송통신위원회, 2016).

이러한 방송통신위원회의 결정은 최근 위치를 식별할 수 있는 기능과 그 정보를 다양하게 처리, 활용할 수 있는 스마트폰이 광범위하게 사용되면서 LBS가 모바일 인터넷 산업의 중요한 축으로 부상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일례로 2013년 미국의 여론조사 연구기관인 퓨연구센터(Pew Research Center)에 의하면 74%의 스마트폰 사용자가 다양한 형태의 정보를 얻기 위해 LBS를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⁷⁾ 방송통신위원회는 무엇보다 LBS가 모바일 인터넷 산업의 중요한 이윤 창출인 광고 시장과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들에서 그 중요성이 점차 중요해지고

7) Pew Research Center, “Location-based Services,” Sep. 12, 2013.

있을 뿐만 아니라 사물간 통신, 정보통신망을 통해 사물을 사용하고 제어하는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IoT), 그리고 온라인상의 정보 검색, 요청을 통해 원하는 서비스나 상점을 연결해주는 온오프라인 연결 비즈니스(O2O, Online to Offline)에서 위치정보가 핵심 자원으로 그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LBS의 상업적 이용 이외에도 화재나 구급, 납치 등 긴급구조와 같은 경우 위치정보를 활용해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다고 지적한다(방송통신위원회, 2016). 방송통신위원회의 결론은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우려 때문에 국내의 위치정보사업법, 개인정보법 등에서 위치정보를 개인정보와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산업에 대한 적절한 진흥과 규제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최근의 여러 법적, 정책적 연구들을 반영한 것이기도 하다(전응준, 2014; 정상조, 2015).

하지만 원거리에 있는, 서로 다른 사회적, 문화적 거리가 있는 집단과 장소, 그리고 서로 다른 시간대에 존재하고 있는 사람들과의 연결과 조정을 가능하게 해주는 원격성 기술의 일부로서 LBS를 바라본다면, LBS 산업 규제나 개인정보의 보호라는 협소한 의미에서의 프라이버시 논의를 넘어 보다 폭넓은 의미에서 근대적 시공간 하에서 “식별되는 자”에 대한 추적과 감시에 대해 논의의 장을 열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측면에서 20세기 후반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의 유연화와 이에 수반된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한 새로운 감시 형태의 도래를 지적한 질 들뢰즈의 논의가 유용할 것이다(Deleuze, 1992). 들뢰즈는 분산화된 방식의 정보와 서비스의 생산과 유통에 기반해 고도화되어가고 있는 후기 자본주의적 사회에서는 학교와 공장, 감옥과 같은 닫힌 공간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에 대한 집중화된 감시와 통제가 그 필요성을 잃어가고 있음을 지적한다. 그는 시-공간이라는 차원에서 생산적인 힘들을 집중화하고 이를 시간의 동기화를 통해 효율적으로 배치, 분산시키는 과정에 성공해왔던 감시체계가, 이제 분산화되고 유연화된 사회-경제 시스템 하에서 개인을 새로운 방식으로 배치시키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에 보다 중요한 것은 새로운 공간적 배치와 제어, 감시가 어떻게 그들이 자발적으로, “무엇에

종사하도록(serve) 만들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

LBS에 의해서 “식별되는 자”는 이런 의미에서 제도적 훈육, 시공간에 대한 감시를 넘어서 시-공간에 대한 재조정을 통해 새로운 방식의 감시와 정보주체에 대한 제어를 수행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가? 이에 우선 현재 LBS로 인해 식별되는 개인은 어떠한 양식으로 자신의 위치정보를 활용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일례로 많은 이들이 사용하고 있는 애플(Apple)이나 구글의 스마트폰에 사용되는 운영시스템(Operating System)은 GPS 기능을 통해 위도와 경도와 같은 표준화된 위치정보를 실시간으로 식별하고 추적할 수 있으며, 페이스북(Facebook)과 같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또한 페이스북 플레이스(Facebook Places)를 통해 사용자의 위치정보를 파악하고, 이에 기반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즉, 전지구적으로 설치된 원격성 인프라를 통해 개인들은 자신의 위치정보를 식별할 수 있고, 이를 활용해 보다 자신에게 유용하다고 생각하는 서비스와 결합시켜 이용하고 있다. LBS의 일종인 구글 나우(Google Now)는 스마트폰의 위치 정보를 활용해 개인에게 유용한 날씨 정보들을 제공해 주며, 이에 나아가 사람들은 이 정보를 이용해 특정 식당이나 목적지까지의 길 안내를 해 줄 수 있다. 국내에서 제공되는 카카오프레이스(Kakao Place)라는 LBS는 위치정보를 활용, 그 장소에서 자신의 사회적 연결망에 있는 친구들이 직접 추천한 장소들을 소개해주는 역할을 해 주고 있다(한국인터넷진흥원, 2013).

그렇다면 LBS 사용 시 위치정보의 주체이자 특정 서비스 사용의 주체인 식별되는 자는 어떠한 특징을 지니는가? 우선 LBS는 GPS 등을 통해 파악된 위치정보자의 시간과 공간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용자 스스로 자신의 위치기반 정보들을 특정 서비스 제공자들에게 제공해주어야 하는 특징이 있다. 또 다른 특징은 식별되는 자가 원하는 서비스나 활동이 공간측위와 시간이라는 두 변수와 결합되어 제공되면서, 그가 활용하는 정보나 특정 행동들에 대한 선호와 취향과 같은 다른 정보들이 시공간 정보들과 결합된다는 점에 있다. 즉 위치정보는 식별되는 자가 구글 맵(Google Map)과 이것이 제공하는 다양한

정보 서비스들을 사용하지 않게 되면, 그가 LBS 사용으로 얻게 되는 여러 정보들과 결합되지 못하게 되며, 이에 그 사용자와 연관되어 얻을 수 있는 여러 유용한 정보들의 가치를 잃게 되는 속성이 있다. 일례로 특정 시-공간에 위치해있는 개인이 이를 이용해 특정 상점이나 식당, 관광지 등에 관한 정보서비스를 받고 이를 직접 활용하지 않는다면, 위치정보와 상업적 정보가 결합되지 않기 때문에 그 유용성을 잃게 된다. 즉, LBS의 특징인 식별되는 자의 시-공간에서의 활동에 대한 정보를 얻지 못하게 되며, 이 경우 위치정보의 유용성은 크게 감소하게 된다. 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위치정보가 LBS를 통해 개인이 수행하는 다른 활동에 대한 정보가 결합되며 나타나는 새로운 시공간 하에서의 특정 활동, 선호의 패턴인 것이다.

이렇듯 시공간 정보와 특정 활동, 선호의 패턴의 유용함은 식별되는 자의 위치정보의 적극적 이용이 없다면 다른 여러 활동의 정보와 결합되기 힘들다는 들뢰즈식의 자발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구글과 페이스북과 같은 기업들은, 가능한 한 많은 사용자들이 자발적으로 LBS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이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자발성을 통해 LBS를 이용하는 ‘식별되는 자’은 어떻게 새롭게, 무엇을 위해 종사하도록 만들어진다고 볼 수 있겠는가? 무엇보다 LBS에서는 식별되는 자의 시공간 정보 하에 개인의 특정 활동, 선호의 패턴이 드러나게 되고, 나아가 이 정보들이 LBS 제공자들에게 모니터링되고 저장되게 된다. 이러한 한 사례로 2014년 미국의 연방통상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 FTC)는 모바일 기기의 사용자 위치정보에 기반해 광고를 제공해주는 LBS 활용을 들고 있다(FTC, 2014). 이 LBS 서비스 제공자는 모바일 기기를 소지하고 있는 개인들이 쇼핑몰이나 상점과 같은 상업적 공간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이동하고 행동하는지에 대한 다양한 정보들을 결합해 시-공간과 구매행위의 패턴을 파악하고 있으며, 이에 기반해 식별되는 자에게 특정 상점이나 상품의 할인 쿠폰이나 정보를 제공해주어 구매를 유도하고 있다. 즉, 단순히 LBS 사용자의 움직임이 추적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정보가 다른 정보와 연관되면서 LBS

서비스 제공자들에게 공간상에서의 이동과 사용자들의 새로운 선호와 패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어 이들의 시공간-활동 선호에 대한 패턴을 제어할 수 있는 위힘이 도사리게 된다는 것이다(Bennett & Crowe, 2005). 다음 절에서는 LBS가 어떠한 방식으로 개인의 시·공간적, 오프라인 활동을 거대한 감시추적 인프라로 편입시키는 역할을 시도하고 있는지 논의해 보겠다.

5. “생활의 모든 순간, 마케팅이 되다”

현대 사회의 여러 기업들, 국가와 정부 행위자들, 소비자들과 다양한 조직의 관리자들은 점점 더 늘어나는 사람과 사물들을 관리, 통제, 동원하기 위해 이전과는 다른 차원에서 엄청난 규모와 범주의 자료 수집과 조직적 분류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에 학자들은 현대 사회의 운영과 관리에 분류와 그에 따른 범주와 표준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을 지적했다(Bowker & Star, 1999). 특히 20세기 중반 이후 모든 개인의 삶과 조직의 운영이 컴퓨터와 같은 정보처리기술을 통해 매개되면서 모든 상업적 거래, 전화와 같은 통신, 국경을 넘나드는 것과 같은 이동, 투표와 같은 정치적 행위 등이 컴퓨터에 저장되고 처리되고 있다(Lyon, 1994). 무엇보다 정보의 수집과 저장, 처리를 용이하게 하는 컴퓨터와 같은 정보처리기술의 등장은 감시를 통한 분류를 보다 정교한 차원으로 발전시켰으며, 이러한 정보를 많이 점유한 자가 개인과 조직에 대한 제어와 통제를 확대할 수 있는 우려 또한 제기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개인과 조직에 대한 정보에 대한 접근과 저장, 처리에 관한 기업과 국가, 개인 간의 불균형이 점차 확대되면서 정치, 경제적 자유가 크게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하는 이들도 있다(Gandy, 1993).

최근까지 감시에 대한 많은 연구들은 개인적 차원에서의 프라이버시의 보호라는 측면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의 제정과 정보수집 산업에 대한 규제에 관한 분석, 혹은 이에 관한 윤리적인 논의가 그 대다수를 이루었다. 일례로 역사학자 프리스실라 리간(Priscilla M. Regan)은 미국에서 지난 50년동안 정보처리와 저장 기술의

발달로 인해 나타난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을 규제하기 위한 다양한 입법 시도들과 그 기저에 있는 프라이버시에 대한 정의를 포괄적으로 분석했다(Regan, 1995). 그녀에 의하면 이러한 입법과 규제의 시도들은 대부분 실패했는데, 이는 프라이버시의 문제를 개인적 차원에서 접근하며, 발전하는 감시 기술의 특성과 이로 인해 나타나는 공공정책적 문제들을 파악하지 못하고, 개인 정보 차원의 규범적인 접근을 시도했기 때문이라 주장했다. 프라이버시에 대한 문제를 개인적 차원의 윤리적 문제로 접근한 사례는 윤리학자 제로엔 호벤(Jeroen van den Hoven)의 연구에서도 드러난다(Hoven, 2004). 그는 프라이버시 문제를, 1) 개인정보의 침해와 오용 등 정보에 기반한 위해; 2) 정보의 접근과 생산에 있어서의 참여 기회 불균형 등으로 인한 정보의 불평등; 3) 개인의 건강 및 의학 정보가 고용주로 이동하며 나타나는 것과 같이 원래 의도했던 개인의 정보의 생성과 공개의 영역이 다른 영역으로 이동하면서 나타나는 정보적 불공정(informational injustice); 4) 그리고 마지막은 자신의 내면을 공개하지 않을 도덕적 자율성에 대한 침해와 같은 문제들이라 분류, 이를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를 판단하는 규범적인 근거로 사용할 것을 제안했다.

하지만 원격 시스템을 근대적 사회 제도의 일부로서 분석함으로써, 원격리 정보수집과 감시를 개인적 차원의 법적 규제의 문제를 넘어서, 기술과 사회, 개인에 관한 보다 과학기술학적이고 공공정책적인 관심 하에 논의를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Regan, 1995). 이러한 논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최근 미디어학자 시바 바이디야나단(Siva Vaidhyanathan)은 초연결시대의 정보수집과 추적을 주도하고 있는 다국적 인터넷 기업 구글에 대한 분석을 행했다. 그는 구글과 같은 기업이 여러 검색, 이-메일, 지도와 같은 서비스를 통해 이미 개인의 정보수집 활동과 통신패턴, 그리고 이동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인터넷이라는 인프라를 통해 전지구화된 규모로 수집과 저장, 추적을 행하고 있으며, 이런 의미에서 구글은 이미 포변화된 감시(universalization of surveillance)를 구체화한 기업이라 지적하고 있다(Vaidhyanathan, 2011).

21세기 지구화된 정보통신의 인프라 내에서 감시의 보편화는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에 대한 논의를 넘어 보다 폭넓은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쟁점들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일례로 바이디야나단은 구글이 이미 전세계적 감시를 행하고 있으며, 이 서비스의 사용자는 구글의 소비자가 아니라 구글의 상품이 되어버렸다고 주장한다(Vaidhyanathan, 2011). 구글은 사용자의 검색 서비스와 이-메일 등의 사용 패턴에 대한 막대한 데이터와 이를 처리하는 알고리즘에 바탕해서, 광고주에게 이들의 사용자 정보를 가공, 판매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구글과 같은 다국적 기업이 보편화된 감시의 과정을 독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구글 맵과 같은 LBS를 통해 광범위한 영역에서 수집된 이용자의 정보는 매우 정확한 분석과 강력한 예측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언제라도 특정 개인이나 기업, 국가의 행위를 사회, 경제, 정치의 공간에서 제어하려는 목적으로 가공되고 이용될 수 있을 위험이 항상 존재하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원거리 기술과 정보처리 기술을 사용한 기계에 의한 정보수집과 감시를 행하는 구글과 같은 회사는, 초기 컴퓨터 모니터링과 인식, 그리고 감시를 논의했던 레브 마노비치(Lev Manovich)의 논의와 비슷하게, 이 모든 과정이 비식별화와 기계의 알고리즘에 기대어 일어나기 때문에 프라이버시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다(Manovich, 1994). 이에 구글과 같이 대규모로 정보를 수집, 처리하는 빅 데이터(big data) 기업들은 연구해온 다나 보이드(danah boyd)는 정보의 양이 중요한 것이라기보다는, 그 정보들이 어떻게 사용자가 다른 맥락에서 생산한 정보와 연관되어 이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맥락 하에서 이해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boyd & Crawford, 2012). 이는 개인의 행동을 분석, 예측, 조절하려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정보가 가치를 가지려면, 그 정보가 그 개인의 특이성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담고 있을 때 더 유용하다는 것이다.

개인 정보의 특이성이 중요한 자원이 되어가는 상황에서, 프라이버시 법과 기술을 연구하는 헬렌 니센바움(Helen Nissenbaum)은 프라이버시에 대한 형식적(formal), 법적, 규범적 정의에 기대어 프라이버시를 이해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그녀는 오히려 정보의 식별, 수집, 저장, 처리에 이르는 특정 기술의 구조 하에서의 정보의 흐름(informational flow)이라는 맥락 하에서 개인이 자신에 대한 정보를 제어할 수 있도록 기술과 법을 정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주장한다(Nissenbaum, 2009). 이러한 지적에 착안해 보이드는 최근 미국 청소년들의 사회적 네트워크 서비스인 페이스북(Facebook)의 사용 형태를 분석하며, 이들이 특정 은어를 사용하거나 잘못된 정보, 가장된 정체성을 공개하며, 자신이 표현한 정보의 의미(meaning)에 대한 접근을 제어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boyd, 2014). 즉 이들은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활동에 대한 감시와 프라이버시 침해를 피하기 위해, 특정 정보서비스의 구조 하에 정보주체인 자신과 이를 식별, 처리하고 제어하려는 서비스 제공자와의 정보 흐름을 교란시켰던 것이다.

니센바움이나 보이드가 현존하는 감시 기술 하에서 프라이버시 보호의 가능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기술의 구조적 분석을 통해 기술적, 정책적 개입을 시도하고 있다면, 하버드 경영대학의 쇼사나 주보프(Shoshana Zuboff)는 전지구적 규모로, 보편적인 형태의 감시를 행하고 있는 구글과 같은 기업의 활동이 감시 자본주의라는 새로운 경제체계를 설립, 확대해나가고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Zuboff, 2015). 주보프는 현재 모든 개인과 기업, 정부의 활동이 컴퓨터와 정보통신 시스템에 의해 매개되고 있으며, 이러한 컴퓨터 매개(computer mediation) 시대는 개인의 삶, 조직의 활동 모두가 막대한 양의 정보를 생산하고, 이러한 정보가 다시 수집, 저장되고 있음을 그 특징으로 한다고 지적한다. 그녀는 감시 자본주의는 사용자의 모든 활동에 대한 정보의 축적의 논리(logic of accumulation)에 의해 유지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구글과 같은 기업이 이메일, 구글맵, 그리고 스마트폰 운영체제 등을 무료로 제공하는 것 자체가 컴퓨터 매개를 통해 개인의 삶의 광범위한 영역에 대한 정보축적과 추적을 위한 것이라 지적한다. 그리고 이러한 기술적, 조직적 인프라를 통해 구글과 같은 전지구적 인터넷 기업이 '자발적인' 컴퓨터 매개 활동을 부추기며, 개인에 대한 광범위한 규모의 데이터에 대한 축적과 이에 대한 추출(extraction), 분석을 통해 정보주체들의 행동을 조정하고 경제적 이윤을

연는 감시자본주의가 도래하고 있다는 것이다.

위치정보는 전지구적 인터넷 인프라에 기반해 개인의 실제, 오프라인 삶에 대한 광범위한 영역에 대한 식별과 추적, 감시를 수행하는 중요한 매개정보로 등장하고 있다. 지역과 시간에 얽매이지 않는 후기 자본주의의 삶 하에서 예측 불가능한 이동성을 파악하고, 정보주체들에 대한 다양한 오프라인 서비스들을 제공하는데 있어 위치정보가 점점 더 중요하게 부상하고 있는 현실은, 감시 자본주의가 점차 실제 삶과 활동의 영역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반영하고 있다. 그 한 예로, 2016년 카카오톡이라는 서비스로 모바일 메신저 부문에서 국내 최대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는 카카오는 “모바일 라이프 플랫폼”이라는 사업 전략을 추구하며, 단순히 모바일 통신회사를 넘어 카카오톡이라는 메시징 서비스를 모바일 통신과 미디어, 상거래, 그리고 오프라인 사업과 연결시키며 온라인 비즈니스를 확장하려 시도하고 있다(카카오, 2016). 카카오택시나 드라이버, 카카오페이, 카카오플레이스와 같이 모바일 플랫폼을 사용하여 실제 생활의 여러 서비스를 제공해주려는 카카오의 중요한 전략적 기술이 바로 위치기반 서비스 관련 기술이다. 이에 카카오는 2013년 국내 최대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에 LBS 기능을 추가했으며, “카카오플레이스”라는 첫 위치기반서비스 앱을 개발해 공개하기도 하였다. 2016년 3월에는 O2O 서비스를 확장하기 위해 회사 모든 서비스 앱들의 위치기반서비스 약관을 통합, 장소공유서비스, 정보제공서비스, 콘텐츠공유서비스, 택시 호출 서비스에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⁸⁾

이러한 카카오의 비즈니스 비전은 “생활의 모든 순간, 마케팅이 되다”라는 테마로 2016년 11월 15일에 열린 카카오 비즈니스 컨퍼런스(Business Conference)에서 보다 구체화되었다. 무엇보다 카카오는 전 국민 97%가 사용한다는 카카오톡의 모바일 서비스 플랫폼과 위치정보의 결합을 통해 개인과 다양한 실생활의 서비스를 연결해주며 실물경제 주체들 간의 효과적 연결을 가능하게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일례로 카카오는 이 컨퍼런스의 O2O 세션에서 카카오택시, 카카오내비와 같은

8) 카카오 위치기반서비스 이용약관, 2016. 9. 5 시행.

교통 O2O 서비스를 통해 곧 LBS에 기반한 “스마트 모빌리티”를 구현할 수 있을 것이라 예측했으며, “카카오광고: 데이터, 사람, 순간의 연결”이라는 세션에서는 모바일 광고를 한 예로 들어 개인의 선호 활동, 이동 경로, 시간 등의 데이터들을 결합해 효율적이고 효과 높은 광고 효과를 보일 수 있을 것이며 새로운 광고 전략을 소개하고 있다. 즉, 24시간, 365일 일상에서 가장 많이 실행되는 모바일 서비스에 LBS를 결합시켜 장소 안내, 정보 공유, O2O, 모바일 광고 등 생활의 여러 영역에서 개인들의 위치를 식별하고, 이를 추적하며 그들의 활동을 모니터링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감시를 연구해온 사회학자 데이비드 리온(David Lyon)은 감시행위란 제어나 관리, 보호를 목적으로 의식적이고 지속적인 체계적인 방식으로 개인에 대한 정보들을 수집하는 활동이라 정의했다(Lyon, 2003). 바이디야나단은, 감시 자본주의 하에서 데이터 추출을 최대화할 수 있도록, 구글과 페이스북과 같은 회사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정보검색에서 상거래, 사회적 활동에 이르기까지 모든 활동을 컴퓨터 매개 과정을 통해 수행, 처리,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주체들을 형성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빅 데이터 시대의 기반은 “구글화된 주체”(Googlized subject)에 의해 형성된다는 것이다(Vaidhyanathan, 2011). 이를 LBS 논의에 비추어보면, 21세기 컴퓨터를 매개로 수행되는 광범위한 영역에서의 삶이 LBS를 통해 식별, 추적, 감시되는 감시 자본주의 하에서, “식별되는 자”는 정보를 얻기 위한 데이터 생산의 자원으로서의 정체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식별되는 자는 구글, 페이스북, 카카오와 같은 기업이 무료로 서비스해주는 플랫폼을 통해 맞춤형 서비스를 얻기 위해 ‘자발적’으로 온라인-오프라인을 포함한 “생활의 모든 순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다. 그리고 컴퓨터 매개 활동의 확대에 기반한 이러한 들뢰즈식 자발적 활동은 이제 LBS를 통해 “생활의 모든 순간”에 대한 시공간적 식별과 추적을 가능하게 해 주고 있다. LBS 시스템은 다국적 인터넷 기업들에게 이제 광범위한 개인의 생활 영역에서 감시 정보의 축적을 가능하게 해 주고 있으며, 정보서비스 제공자들은 이러한 정보의 추출과 축적을 통해 감시 자본주의 논리에

부합하는 새로운 사업 영역들을 개척해나가고 있는 것이다. 다음 절에서는 위치정보를 통한 광범위한 정보의 축적이 실제 시·공간 하에서 식별되는 자에 대한 관리와 제어가 어떻게 나타날 수 있는지를 오제의 비-공간 논의를 통해 살펴볼 것이다.

6. LBS: 비-장소의 생산

현대의 새로운 감시체제는 통계학, 알고리즘을 통해 새로운 방식의 분류, 더 복잡하고 세분화된 분류를 할 수 있고, 나아가 이렇게 나타난 새로운 분류를 통해 이들에 대한 제어와 통제를 강화할 수 있는 기술적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Graham & Wood, 2003). 흥미로운 것은, 이러한 분류가 감시 주체가 강제하는 훈육의 차원에서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다시 역으로 분류의 영향 하에 있는 사람들의 행위 가능성의 영역에 영향을 미친다는 철학자 이언 해킹(Ian Hacking)의 지적이다(Hacking, 1986). 일례로 사회학자 오스카 갠디(Oscar Gandy)는 새로운 형태의 감시가 단순히 사람을 식별하고 이들에 대한 묘사를 새롭게 하는 것들 넘어, 이들 자체의 정체성과 행위의 가능성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고 주장한다(Gandy, 1993).

그렇다면 LBS는 어떠한 방식으로 위치정보에 대한 추적과 감시를 통해 실제 시·공간 하에서 식별되는 자에 대한 관리와 제어를 수행하고 있는가? LBS 감시와 식별되는 자의 관계에 대한 분석에서 유용한 것은 공간이 사회적으로 생산되는 것이며, 이렇게 생산된 공간이 다시 그 공간 내의 행위자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공간의 생산에 관한 논의일 것이다(Lefebvre, 1991). 이러한 측면에서 LBS는 그 시스템에 의해 식별되는 자를, 그 서비스의 목적에 따라 특정한 공간 속에 편입시키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과정에서 LBS는 사용자들의 위치 정보와 활동들의 수집 과정을 통해 다양한 정보들을 결합하고 있으며, 이에 기반해 그들이 존재하고 있는 공간을 새롭게 구성하는 것이다.

일례로 모바일 앱으로 제공되는 포스퀘어(Foursquare)라는 LBS 서비스는,

사용자의 검색이나 요청에 따라 그들의 “취향을 파악하고… 유사한 장소에 대한 평가, 그리고 가장 신뢰하는 친구와 전문가를 바탕으로 제공되는 최고의 추천 항목”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⁹⁾ 포스퀘어의 자매 앱인 스웜(Swarm)은 위치기반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를 추가해 자신의 위치를 표시, 그 주변에 자신과 사회적 관계를 맺은 사람들과 “계속해서 빠르고 쉽게 연락하며 만날 수 있게 도와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¹⁰⁾ 두 앱 모두는 사용자의 위치정보를 식별한 후,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검색 키워드를 중심으로 그가 존재하고 있는 공간을 텍스트 및 기호, 이미지의 공간으로 변모시킨다. 일례로 그가 특정 상품을 입력하면, 이를 판매하는 매장들로 재편된 지도를 표시하고, 현재 위치로부터 그 위치에 도달하는 방식 등을 안내해주는 것이다.

이렇듯 LBS의 기술적 구조 하에서 사용자는 자신의 위치정보를 제공하고, 이에 기반해 자신이 찾고자 하는 정보나 서비스를 요청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식별되는 자의 공간은, 그 자신의 행위 가능성들을 지시하는 텍스트나 기호의 공간으로 재편된다고 볼 수 있다. LBS가 식별하는 자의 공간을 특정한 행동을 지시하는 텍스트로 바꾸는 것은, 바로 오제가 지칭한 비-장소의 생성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다. 오제는 후기 자본주의 시대, 끊임없이 생산, 소비, 이동하는 주체들을 위해 대형 매장과 같은 상업(commerce)과 공항과 같은 이동(mobility)의 공간들이 지속적으로 생산되고 있음을 지적한다(Augé, 1995). 그는 이러한 장소들에 편입된 개인은 그 정체성을 잃고, 자신의 삶을 유지하는 장소의 역사와 문화와 유리되며, 타인과의 상호작용이 부재한 원자와 같은 존재로 변해가고 있으며, 이런 의미에서 이 공간을 “비-장소”라 정의한다.

오제는 개인의 관계, 그의 역사와 정체성이 부재하는 비-장소의 대표적인 예로 고속도로, 공항, 대형 매장 등을 제시했으며, 이들 장소들에 존재하고 있는 주체들의 행위 가능성은 해당 비-장소가 제공하는 지시사항들로 이루어진 텍스트

9) “About Foursquare,” <https://ko.foursquare.com/about> (Accessed, May 2015).

10) “About Foursquare,” <https://ko.foursquare.com/about> (Accessed, May 2015).

들에 의해서 규정된다는 점에 주목했다. 비-장소 내에 존재하는 각종 안내 및 행동 지침들, 예를 들면 “서울을 가려면 오른쪽 차선을 타시오”, “유아 의류는 왼쪽 편으로 돌아가면 찾을 수 있습니다”, “소설책 구역입니다” 등과 같은 지시, 정보, 권고의 텍스트 및 기호들은 어떤 특정 개인이 아니라 소비와 이동을 위해 비-장소를 창출한 기관들에 의해 제공된다. 이렇듯 오제에 의하면, 비-장소 내에서 개인과 그 주변과의 연결은 텍스트의 매개에 의해 확립되고, 이러한 텍스트는 비-장소 내에 존재하는 개인들이 상호작용할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오제는 이러한 비-장소 하에서 개인은 “텍스트에 의한 공간의 침투(the invasion of space by text)”을 경험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개인은 텍스트에 의해 재구성되는 평균적이고 유사한 개인 중 하나로 변모한다고 주장한다(Augé, 1995: 80). 일례로 고속도로 위의 운전자나 기차의 승객은 그들이 통과하는 지역 사람들의 삶의 모습들과 마주칠 기회 없이 표지판이 제공하는 각종 이미지들, 문자들과 상호작용하며 해당 지역을 빠른 속도로 통과한다. 대형 할인매점에서 고객은 대부분의 시간을 침묵한 채 돌아다니며 가격표들을 읽고, 카드 리더기가 지시하는 대로 신용카드를 긁으며 계산을 마친다. 이 과정에서 개인들은 그들을 둘러싼 비-장소와 “계약적 관계(contractual relation)”를 맺게 된다. 이들은 대형 할인매점, 고속도로, 공항과 같은 비-장소 내에서 신용카드, 통행료, 비행기표를 직원에게 계약의 증표로 제시함으로써 승객, 소비자, 운전자와 같은 정체성을 부여받으며 비-장소로 진입한다. 그리고 고속도로, 대형 할인매점에서, 그 공간의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은 행동 양식을 지시하는 텍스트들은 그 곳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도로 또는 소매 시스템의 사용자라는, “평균인(average man)”이 되게 만든다. 이렇듯 무엇보다 비-장소는 승객, 소비자, 운전자와 같은 일시적이고 공유된 형태의 정체성을 만들어내고, 이에 이들은 비-장소 내에서 같은 기호를 따르고 같은 메시지를 수신하는 “유사성(similitude)”을 지니게 된다는 것이다.

최근 아마존 고(Amazon Go)라는 슈퍼마켓 서비스의 사례는 LBS가 어떻게 상업적 목적을 지닌 비-장소를 생산하고 있으며, 그 안에서 식별되는 자의 행위를

추적, 감시하며 유사한 소비자를 만들고 있는지를 보여준다.¹¹⁾ 이 서비스는 컴퓨터 비전(computer vision)과 각종 센서(sensor)들과 같은 위치기반 및 식별 기술을 사용하여, 스마트폰을 사용하여 자신의 정보를 제공해 아마존 고 상점에 들어온 소비자의 위치와 행동 패턴, 구입 물품에 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추적해 준다. 이에 소비자는 쇼핑을 마친 후, 구입 물품을 확인하고 이를 계산, 지불할 필요 없이 스마트폰을 통해 추적된 구입물품을 간단히 결제하는 편리함을 누리게 된다. 이렇듯 소비자는 아마존이라는 LBS 제공자와 '자발적'으로 계약을 맺고 위치정보를 제공하며, 아마존은 상점 내부의 개인의 이동과 구매패턴에 대한 광범위한 정보를 얻게 된다.

이 과정에서 식별되는 자는 LBS를 통해 재편된 공간으로 편입해 들어가게 된다. 그/그녀는 이 공간에서 LBS를 통해 안내와 서비스의 텍스트, 즉 알고리즘화된 행동의 가능성이라는 제약 하에 놓이게 된다. 이러한 개인의 활동들이 방대한 규모로 축적되고 분석되면, 아마존은 보다 더 정밀하게 공간을 새로운 패턴으로 재구성하여 소비자들의 행동에 대한 제어를 확대할 수 있게 된다. 이제 비-장소 내에서 서로 유사한 상품을 구매하고, 유사한 행동을 수행하게 된다는 것이다. 결국 LBS의 사용자는 전 세계적인 순환과 소비, 기술혁신의 일원으로서 참여하는 것 같은 착각에 빠지지만, LBS는 점차 감시와 조정의 가능성을 키워가는 그 비-장소의 생산 과정에 식별되는 자를 편입시키고 있으며, 개인은 점차 비-장소 내에서 점차 익명성으로 가려진, 고독하지만 유사하게 행동하는 존재로, 그 존재의 의미와 가능성이 축소되고 있다는 것이다(Augé, 1995). 이를 반영하듯, 2009년 감시 자본주의의 대표주자라 할 수 있는 구글의 최고경영자 에릭 슈미트(Eric Schmidt)는 “사람들은 어디에서나 다 똑같다”(People are the same everywhere)라며 전 지구적 차원에서 사람들의 취향과 행동의 보편화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Vaidhyanathan, 2011: 108).

11) “Amazon Go” <https://www.amazon.com/b?node=16008589011> (Accessed, Dec, 2016).

7. 나가며

본 논문은 원거리 식별, 추적, 감시를 통해 시-공간에 대한 관리와 제어를 가능하게 해주는 원격성 기술의 발전이라는 맥락에서 21세기 위치기반기술을 분석하였다. 우선 이 기술의 법적, 사회적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서 LBS 시스템과 사용자가 관계를 맺는 방식, 그리고 이 시스템 내에서의 정보의 흐름을 중심으로 이 기술의 구조를 규명하였으며, 이를 통해 LBS가 어떻게 식별되는 자의 위치정보, 이를 활용한 서비스, 그리고 서비스 사용자 간의 정보의 흐름과 처리에 따라 원거리 위치와 행위의 식별, 감시, 제어를 위한 기술적 가능성을 열어 주었는지에 주목했다. 이를 통해 LBS가 20세기 후반 어디에서나 존재하는 전 지구적 정보통신 인프라의 구축 하에, 시-공간의 분리를 통해 동기화된 공간 내에서 사용자들의 활동을 수집, 추적, 감시할 수 있는 기술 시스템으로 발전하였음을 살펴볼 수 있었다.

다른 측면에서 본 논문은 공간적 배치와 근대적 감시에 대한 논의에 기반해, 원격성 기술로서 LBS이 행하는 식별과 감시의 특징에 대한 분석과 식별되는 자의 법적 지위와 감시의 문제를 분석했다. 이를 통해 어떻게 위치정보 서비스가 식별된 자에 대한 감시와 추적을 통해 시공간 조정의 변화와 행동 패턴을 범주화하고 이를 예측, 관리, 제어하며 감시 자본주의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는지를 논의했다. 이를 통해 특히 전지구적 인터넷 인프라에 기반해 개인의 실제, 오프라인 삶의 광범위한 영역들이 컴퓨터 매개를 통해 일어나는 이 시대, 위치정보가 “생활의 모든 순간”에 대한 식별과 추적, 감시를 수행하는 중요한 매개정보로 등장하고 있음을 지적 했다. 여러 인터넷 기업들은 위치정보와 사용자의 자발적 컴퓨터 매개 활동에 기반해서 모든 활동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이의 축적을 통한 이윤의 추구하는 감시 자본주의의 논리를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은 21세기 전 세계적인 순환과 소비, 기술혁신의 일원으로서, 컴퓨터를 매개로 수행되는 광범위한 영역에서 삶을 영위하는 ‘식별되는 자’가

식별되는 자: 위치기반기술, 원격성과 감시의 문제, 그리고 비-장소(non-place)

감시 자본주의 하에서, 정보의 축적을 위한 데이터를 제공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그/그녀의 삶은 결국 LBS 시스템 하에서 점차 감시와 조정의 가능성을 키워가는 그 비-장소 내에서 점차 유사한 방식으로 영위될 위험에 처해있음을 살펴보았다. “사람들은 어디에서나 다 똑같다”는 구글 최고 경영자의 언급은 LBS 시스템의 전지구적 영향력을 보여주는 것인 동시에, 이 시스템 하에서 일어나는 공간의 사회적 구성과 이에 관여하는 기술과 법의 상호 작용에 대해 보다 구체적이고 비판적인 분석과 개입이 필요함을 일깨워 주는 것이다.

참 고 문 헌

- 개인정보보호법, 2014.11.19 시행.
- 박경신 (2012), 「“개인정보”의 정의와 위치정보보호법의 개선 방안」, 『법학연구』, 제37권, pp. 191-221.
- 박정훈, (2011) 「최근의 위치정보에 관한 논의, 그리고 그 평가와 시사: 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경희법학』, 제46권, pp. 111-154.
- 방송통신위원회 (2016.1), 「위치정보 이용 활성화 계획」.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2005.1.27. 제정.
- 전응준 (2014), 「위치정보법의 규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정보법학』, 제18권, pp. 203-242.
- 정상조 (2015), 「위치기반서비스 규제에 관한 연구」, 『2015 Naver Privacy White Paper』.
- 카카오 (2016), 「Investor Relations 2016. 6.」.
- 한국인터넷진흥원 (2013), 「LBS 산업 실태조사」.
- 한국인터넷진흥원 (2016), 「2015 국내 LBS 산업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
- Augé, M. (1995), *Non-Places: Introduction to an Anthropology of Supermodernity*, London·New York: Verso.
- Bauman, Z., & Lyon, D. (2013), *Liquid Surveillance: A Conversation, Polity*.
- Beetham, D. (1985/1974), *Max Weber and the Theory of Modern Politics*, Cambridge: Polity.
- Bennett, C. J., & Crowe, L. (2005), “Location-based Services and the Surveillance of Mobility: An Analysis of Privacy Risks in Canada”, *A Report to the Office of the Privacy Commissioner of Canada*, under the 2004-05 Contributions Program.
- Bowker, G. C., & Star, S. L. (1999), *Sorting Things Out: Classification*

- and Its Consequences*, Cambridge, Mass.: MIT Press.
- boyd, D. (2014), *It's Complicated: The Social Lives of Networked Teens*,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 boyd, D., & Crawford, K. (2012), "Critical Questions for Big Data", *Information, Communication & Society* 15 (5), pp. 662-79.
- Dandeker, C. (1990), *Surveillance Power and Modernity*, Cambridge: Polity.
- Deleuze, G. (1992), "Postscript on the Societies of Control", *October* 59, pp. 3-7.
- Dobson, J. E., & Fisher, P. F. (2003), "Geoslavery", *Technology and Society Magazine* 22 (1), pp. 47-52.
-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2012), *Location-Based Services: An Overview of Opportunities and Other Considerations*.
- Federal Trade Commission (2014), *Spring Privacy Series: Mobile Device Tracking*.
- Foucault, M. (1975/1977), *Discipline and Punish: The Birth of the Prison*, Pantheon Books.
- Gandy, O. H. (1993), "The Panoptic Sort: A Political Economy of Personal Information", *Critical Studies in Communication and in the Cultural Industries*, Boulder, Colo.: Westview.
- Giddens, A. (1990), *The Consequences of Modernity*, Cambridge, UK: Polity Press in association with Basil Blackwell, Oxford, UK.
- Graham, S. & Wood, D. (2003) "Digitising Surveillance: Categorisation, Space, Inequality", *Critical Social Policy*, 23 (2), pp. 227-248.
- Hacking, I. (1986), "Making Up People", in Heller, T., Sosna,

- M., & Wellbery D., eds. *Reconstructing Individualism: Autonomy, Individuality, and the Self in Western Thought*,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pp. 222-236.
- House Commission on Energy and Commerce. (2010). *The Collection and Use of Location Information for Commercial Purposes: Hearing before the Subcommittee on Commerce, Trade and Consumer Protection and the Subcommittee on Communications, Technology, and the Internet*, 111th Congress. (Feb. 24, 2010)
- Hoven, J. (2004), "Privacy and the Varieties of Informational Wrongdoing", Spinello, R. A. & Tavani, H. T., eds. *Readings in Cyber Ethics*, 2nd ed. Boston: Jones and Bartlett Publishers, pp. 488-500.
- Joore, P. (2008), "Social Aspects of Location-Monitoring Systems: The Case of Guide Me and of My-SOS." *Social Science Information* 47 (3), pp. 253-274.
- Lefebvre, H. (1991), *The Production of Space*, D. Nicholson-Smith (trans.). Oxford: Blackwell Publishing.
- Lessig, L. (1999), *Code and Other Laws of Cyberspace*, New York, NY: Basic Books.
- Lyon, D. (1994), *The Electronic Eye: The Rise of Surveillance Society*,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 Lyon, D. (2003), *Surveillance as Social Sorting: Privacy, Risk, and Digital Discrimination*, London·New York: Routledge.
- Lyon, D., Marmura, S. & Perpoff, P. (2005) *Location Technologies: Mobility, Surveillance and Privacy: the Surveillance Project, A report to the Office of the Privacy Commissioner*

- of Canada under the Contributions Program*, Kingston, Canada: Department of Sociology, Queen's University.
- Manovich, L. (1994), "Automation of Sight: From Photography to Computer Vision," Paper presented at a conference, "Photography and the Photographic: Theories, Practices, Histories," University of California at Riverside.
- Nissenbaum, H. (2009), *Privacy in Context: Technology, Policy, and the Integrity of Social Life*, Stanford University Press.
- Pickles, J. ed. (1995), *Ground Truth: The Social Implications of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s*, New York: Guilford.
- Regan, P. M. (1995), *Legislating Privacy: Technology, Social Values, and Public Policy*,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 Vaidhyathan, S. (2011), *The Googlization of Everything: (and Why We Should Worry)*,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Withers, C. W. J. (2009), "Place and the "Spatial Turn" in Geography and in History", *Journal of the History of Ideas* 70 (4), pp. 637-58.
- Zuboff, S. (2015), "Big Other: Surveillance Capitalism and the Prospects of an Information Civilization", *Journal of Information Technology* 30 (1), pp. 75-89.

논문 투고일	2016년 12월 01일
논문 수정일	2016년 12월 26일
논문 게재 확정일	2016년 12월 27일

The Identified Self: Location-Based Technologies, Surveillance, and Non-place

Yi, Doogab

This essay examines the recent proliferation of location-based services (LBS) within the context the expansion of the technologies of remote identification, monitoring, and tracking. Following the spatial turn in the social sciences, this essay aims to analyze LBS as a surveillance technology that can re-shape the spatial configuration of its users and their identity. The analytic focus of this essay is on LBS within the global information infrastructure, and it utilizes key LBS examples in the US and South Korea. First, as a way to discuss the technical possibilities of LBS for spatial coordination and surveillance, this essay investigates its technical architecture in terms of information flow. It then discusses the issue of privacy in LBS by analyzing some of its key legal and regulatory issues. The combination of the global information infrastructure with location-related technologies has enabled LBS companies to expand the scope of surveillance over the ever-increasing computer-mediated activities, prompting heated discussions over whether LBS is capturing “Every Moment in Your Life.” This essay concludes with a discussion on how location technologies have provided a key platform for the rise of surveillance capitalism through the creation of what Marc Augé called a “non-place,” a place where the identified self is constituted by LBS.

Key word: Location-based Technologies, Remoteness, Surveillance Capitalism, Non-place